

Religious Education for all who will live in an Super Aged Society: in the Context of the Catholic Church

Kyungyee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atholic discussions of old age and old age education in the context of an super-aged society,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content and practice of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for older person.

[Content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Catholic perspective on the elderly, an understanding of old age is necessary for everyone; understanding the elderly based on a Catholic anthropology; time and care as gifts of old age; a new understanding of the care that the elderly receive; looking at productivity in old age with a new perspective; old age in the Bible and the frailty and fragility of the elderly in it; the reality of death; striving for wisdom; prayer for the elderly; and taking an interest in elderly issues. Second, for the design of a religious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elderly, it deals with the scope of the target of religious education for the elderly, education for the elderly, education by the elderly, and the perspectives of education about the elderly.

[Conclus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atholicism recognises and has a positive view of the meaning of life in old age. Therefore, religious education for older adults will aim to educate for wisdom, and hope, growth, and development are the vision of older adult education. Catholic faith communities can be appropriate learning spaces for older people's education because everyone should be a target for older people's religious education.

[Keywords] Super aged society,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for older people, Catholic lifelong learning, Education for older people

*** Corresponding author** Kyungyee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 clara90@catholic.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초고령 사회를 살게 될 모든 이를 위한 종교교육: 가톨릭 교회의 맥락에서

김경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라는 시대 상황에서 가톨릭의 노인과 노인교육에 대한 담론을 고찰하여 가톨릭 노인 종교교육의 내용, 교육 실행의 방향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가톨릭의 노인과 나이 듦의 관점 그리고 가톨릭 노인 종교교육과정 설계에 대해 탐색한다. 첫째, 노인, 노년기에 대한 가톨릭의 관점에 의하면 노년기에 대한 이해는 모든 이에게 필요하며, 가톨릭의 인간관에 기초한 노인 이해, 노년이 되어 얻는 선물로써 시간과 돌봄, 노인이 받는 돌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관점으로 노년기 생산성 바라보기, 성경에 담긴 노년기 삶과 그 안에 담긴 노인의 쇠약과 덧없음, 죽음의 실제, 지혜를 위한 노력 추구, 노인의 기도 그리고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에 대해 다룬다. 둘째, 노인 종교교육과정 설계를 위해서는 노인 종교교육의 대상 범위,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에 의한 교육, 노인에 관한 교육의 관점을 다룬다.

[결론] 가톨릭은 노년기 삶이 갖는 의미를 인식하고 긍정적 관점을 갖는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종교교육은 지혜를 찾는 교육을 목표로 해야 하며, 희망, 성장, 발전은 노인교육의 비전임을 확인하였다. 모든 이가 노인 종교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가톨릭 신앙공동체는 노인교육을 위한 적절한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다.

[주제어] 초고령 사회, 가톨릭 종교교육, 가톨릭 노인 종교교육, 가톨릭 평생교육, 노인교육

I. 서론

“우리의 미래는 조부모와 손주들이 어떻게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가에 달려있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제4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2024년 7월 28일)

초고령 사회, 팬데믹 시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등과 같이 시대에 특정한 이름이 붙으면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를 칭한다. UN의 생산 가능성에 따른 인구 구분에 의하면 15-64세는 생산가능인구, 0-14세 유소년 인구와 65세 이상은 비생산인구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aged society)라 하는데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이 14.4%여서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23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8.4%였고, 2025년에는 20.6%가 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The Seoul Research Data Service, 2024). 예측대로라면 7년 정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초고령 사회를 준비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생산 가능성이 인구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것은 생산 인구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생산’ 연령으로 간주되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회는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수립과 생산 인구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초고령 사회에 대한 논의는 주로 노년 인구의 비생산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과중해질 것을 염려하는 암울한 미래의 모습으로 전개된다(Kim & Cho, 2017: 7). 인구 고령화는 사망률 개선, 기대수명 연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Kim et al., 2023: 2).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는 의학 기술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제도 발전의 결과이다. 인류가 기대하는 미래이자, 인류 사회 발전의 긍정적 성과이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를 긍정적 발전의 결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려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다. 유소년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 비율 감소에 따라 경제적 차원에서 부각되는 암울함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노년기에 대한 이슈를 경제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년 인구에 대한 문제를 경제적 생산성의 관점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초고령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Choi & Kim, 2012; Kim & Cho, 2017: 8). 경제적 차원에서만 노년기 주제에 접근하면 노인을 돌봄에 의존하여 생산 가능 인구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로 보게 된다. 그러나 노인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고령화 및 이와 관련된 이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Kim & Cho, 2017: 8). 경제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내는 것으로 이어진다(Park, 2003: 39). 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노년기 삶을 바라보는 것은 노년기 삶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고령 사회에서 노년기 삶이라는 주제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사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통합적이지 않고 개별 영역으로만 접근하면 노년기 삶에 온전하게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경제적 가치의 차원에서만 초고령 사회와 노년기 삶이라는 주제에 접근한다면 노화는 부정적이고 세대 간 편견과 갈등의 요인이 된다. 기대수명의 연장이라는 인류의 발전적 성과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으로서 종교교육¹⁾ 차원에서 초고령 사회의 노인교육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노년기를 가치있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실증적 연구에서도 긍정적 의미가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18: 86). 종교교육에서는 삶이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가, 의미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 질문을 다룰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삶에 대한 가톨릭 종교교육에 대한 비전을 탐색하여 구체적으로는 초고령 사회에서 노년기 삶을 주제로 하는 가톨릭 노인 종교교육 교육과정 설계에서 고려해야 점들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기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의 관점에서 노년기 삶(또는 나이 듦, 노인²⁾)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둘째, 노년기 교육에 대한 제안들은 무엇인가?

II. 가톨릭의 노인과 '나이 듦'에 대한 관점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가 있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지만 개념화 작업에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한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 요인은 중복되고,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이 연구마다 다르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An et al., 2011: 49). 성공적 노화를 개념화하는 작업은 문화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잘 나이들기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개념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와 노년기 특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 1) 본 글에서는 종교교육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노인교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본 글에서 노인 종교교육을 의미한다. 종교교육은 종교적 교육, 종교의 교육, 종교에 관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글에서 종교교육은 가톨릭에서 실행하는 종교교육이며, 가톨릭 노인 종교교육을 의미한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인교육을 염두에 둔다.
- 2) 노년기 삶, 나이 듦, 노인의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본 글에서는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문맥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자 한다. 인용하는 경우 원글에서 제시된 용어로 표현한다.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가 있다. 신자유주의 대두와 함께 경제적 생산이 어렵고 복지 수혜자로 상상되는 노인 인구의 급증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용어이다. 생산적 노화는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노년 개념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한 것이지만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Kim & Cho, 2017).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Row와 Kahn(1998)의 이론이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super elder”를 연상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Lee & Cho, 2007: 12에서 재인용).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서 노화에도 ‘성공’과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노년기 삶의 목표를 표현할 때,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 가라는 의문이 든다. 성공적 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없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가톨릭 교회의 노년기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종교교육에서 제시할 수 있는 노년기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1. 노인, 노년기에 대한 가톨릭의 관점

1) 모두에게 필요한 노년기에 대한 이해

가톨릭 교회(이하 교회)는 노년기 삶에 대한 이해가 모든 이에게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교회는 1998년 10월 「교회와 세상 안에서 노인의 존엄과 사명」(The Dignity of Older People and their Mission in the Church and in the World)³⁾(이하 「존엄과 사명」)이라는 문서를 발표했다. 오래전에 발표된 문서이지만 노인을 주제로 하는 이후의 문서들은 「존엄과 사명」에 기초하여 연속되며 시대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접근하고 있으므로 본 문서를 살펴보는 것은 타당하다.

「존엄과 사명」은 제3연령기, 제4연령기에 속한 이들 즉 노년 인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노년의 의미와 가치, 노인에 대한 신학적 이해, 모든 이의 문제로서 노인문제, 교회의 노인 사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연령기는 직장에서 은퇴를 했지만 아직 내적으로 큰 힘을 지니고 있고, 공동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연령이고, 제4연령기란 75세 이상의 연령이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이 문서의 발표 목적과 대상 독자는 노년 인구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년기 삶은 모든 이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년기란 처음에는 타인의 삶이지만 마침내는 자신의 삶이 되는 시기이니 노년기에 대한 이해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셈이다.

「존엄과 사명」에는 성경에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할 것을

3) 본문에서 약어 「존엄과 사명」으로 표기하거나 인용한 문장에서 문서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항의 번호만 제시한다.

강조한다. 성경에서 나이 많은 노인에 대한 공경은 준수해야 할 법과 계명이기도 하다.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Lv 19:32).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Sir 3:16). 하느님과 개인적 체험을 가진 노인을 공경할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년기에 대한 이해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2) 가톨릭의 인간관에 기초한 노년 이해

가톨릭의 노인에 대한 관점은 가톨릭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다. 이와 관련되는 가톨릭의 인간 이해는 다음과 같다. 가톨릭(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느님의 숨결을 받아 하느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존재이다. 가톨릭 신앙인이 고백하는 인간은 하느님과 연결된 영적 존재이다.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 전체를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결로 창조한 존재이다(Park, 2009: 6). 영적 존재라는 말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영을 소유한다는 것도 아니며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영의 본질적인 초월적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Park, 2009: 6).

영아, 유아, 아동, 청년, 성인, 노인은 연령대에 따른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UN은 1995년 ‘the elderly’ 대신 ‘older person’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Nam, 2016: 9). 한국에서도 노인을 칭하는 여러 용어가 있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후기 성인, 실버세대, 제3연령 등이 그것이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 때문이다(Nam, 2016: 9). 사물이든 제도이든 생명체이든 간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지하고, 퇴화하고, 소멸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노화의 과정도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런데 사람의 노화 과정은 달리 보아야 한다.

「존엄과 사명」에서는 노인이 된다는 것, 노년기가 갖는 의미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년은 더 이상 남에 대한 의존이나 저하된 삶의 질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한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53). 노년기 또한 의미와 가치가 있고, 노화의 과정을 인간다움 즉 생명의 과정 그 자체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55). 또한 현대 사회에 노인이 많다는 것은 “하나의 은혜이며 풍요를 위한 새로운 인간적 정신적 잠재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시대의 징표로서 시장의 힘과 국가 또는 일반적인 인식이 만들어 내는 지극히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기만 한다면 현대인들에게 생명의 근본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55).”

교회가 노년에 대한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노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노인들은 모두 다르다. 노인은 다양하고 다채로우며,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동안 노년과 그것을 경험하는 길을 준비하고있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53). 사람들은 다양하고, 모든 이의 삶은 다르다. 삶의 경험이 축적된 노인들의 다양함은 어느 연령대보다 다채롭다. 그래서 노인이 많다는 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풍요의 원천으로 보자고 권고한다.

3) 노년이 되어 얻게 되는 ‘선물’

예외는 있으나 사람들이 노년과 함께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선물’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시간과 돌봄이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대부분은 직무 혹은 생업을 위해 사용하던 시간을 되돌려 갖는다. 또한 경제적 신체적 등의 이유로 가족, 이웃, 사회로부터 돌봄을 얻게 된다.

교회는 노년이 갖는 사심없는 마음, 기억, 경험, 상호의존, 더욱 완전한 인생관을 은사 즉 선물이라 한다. 사심없는 마음이란 되받고자 하는 의도 없이 자신과 무엇인가를 내어 주려는 마음이다. 효율성과 물질적 성공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대에 사심없는 마음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의 사심없는 마음은 지나치게 바쁜 사회에, 우리의 의타적 마음을 억누르는 무관심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55-56).

노년기가 되면 누구나 미래 세대와 나눌 만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도 선물이다. 과학과 기술이 그러한 경험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지만 제3, 제4연령기에 속한 이들이 갖는 경험에는 다음 세대와 나눌 것이 많이 있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56).

상호의존도 선물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자기 자신이 되어 간다. 가톨릭의 사회론적 관점은 인간은 공동체 안의 존재로서 서로를 돌보는 책임을 갖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Groome, Cho et al., trans., 2021). 그런데, 본질적인 측면인 상호의존을 왜 선물로 보는 것일까? 그것은 노년기 삶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호의존성이 미래 세대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존엄과 사명」에서는 어떤 인간도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개인주의와 자기 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교우관계를 추구하고, 약자가 버림받고 있는 사회문제를 제기하며 상호의존적 사회관계 구조를 회복할 필요성과 인간의 사회성에 주목하게 한다’는 점을 다시 깨닫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호의존은 노년기의 은사 즉 선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더욱 완전한 인생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년기가 시작되는 제3 연령기가 되면 삶은 조급함에서부터 벗어나거나, 벗어날 수 밖에 없는 시기로 접어든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더욱 완전한 인생관을 갖는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고 본다. 단순성과 관조의 시기가 시작되므로 소유

보다는 존재의 우위성을 깨닫는데 유리한 시기에 들어서기 때문이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56).

노인들이 구현하는 정서적·도덕적·종교적 가치는 사회와 가정, 개인의 조화를 증대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다. 책임 의식, 하느님께 대한 신앙, 우정, 권력에 대한 무욕, 신중함, 인내, 지혜, 피조물을 존중하고 평화를 증진시킬 필요성에 대한 깊은 내적 확신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가치에 포함된다. [중간 생략] 인간 사회가 노년의 은사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줄 알 때, 그 사회는 더욱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56)

4) 노인이 받는 돌봄

인간 생명은 절대적 의존과 돌봄에서 시작하고 마친다. 출생 직후에는 부모 혹은 양육자에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자녀 혹은 돌봄 제공자에게 절대적인 의존을 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돌봄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이 관계적 존재이고 상호의존하는 존재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노인이 받는 돌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간은 서로 돌봄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켜 주는 관계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하느님은 아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자 카인이 하느님께 되묻는다. “모릅시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Ge 4:9)”는 성경에 나오는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다(Groome, Cho et al., trans., 2021: 245). 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아야 합니까? 라는 반문이다. 가톨릭 사회론의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돌봄은 돌봄을 제공하는 이와 사회가 인간답고 공동체다운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가톨릭의 교회론과 사회론은 개인의 안녕과 전체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한다. 공동체는 “구원받기” 위한 그리고 “인간이 되기” 위한 일차적 환경이다(Groome, Cho et al., trans., 2021: 248).

한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은 그 사회의 생명에 대한 인식, 세대 간의 관계, 사람들 간의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노인들의 삶은 인간적 가치 척도를 밝혀주고, 세대 간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하느님 백성의 상호 의존성을 훌륭하게 증명해 준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66).

5) 새로운 관점으로 노년기의 생산성 바라보기

생산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노인의 대부분은 비생산적이고 고령화가 될수록 활동 반경이 제한되어 비생산성이 심화된다.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에 의존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경제적 생산성의 의미를 다른 이의 생명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바라볼 수 있다. 경제 활동 인구의 생산성을 돕는 것으로 본다면 즉 생산성을 새롭게 본다면 노인은 그들만의 고유성

에 따른 생산성을 가진 인구 집단이다. 교회적 의미에서 생산성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이 하는 기도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달 담화(Pope Francis, 2021: 88)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말을 인용하여 노인들의 기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인들의 기도는 세상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많은 이들의 노고보다 어찌면 더 통찰력 있게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곧 여러분의 기도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Pope Francis, CBCK, trans., 2021: 88).” 기도를 허파의 기능에 비유하고 있다. “교회는 기도하는 허파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Pope Francis, CBCK, trans., 2017: n. 262). 신앙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깊은 신앙심을 가진 노인의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는 후손들의 생산성은 노인들의 기도에 의탁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묵상과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이는 시사점이 크다.

“노인들은 평생의 결실인 지혜와 경험으로 놀라운 은총의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그 시간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도록 촉구하는 새로운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노년의 은혜를 활용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바칠 수 있는 자선활동, 교리교사나 복음 전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도직, 독서자와 제대 봉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례, 교회 단체들, 가정, 묵상과 기도, 시련·질병·고통, 생명의 문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CBCK, trans., 1998: 71-73).

그런데 시련·질병·고통을 생산성의 근거로 볼 수 있는가?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생산성의 토양이 된다. 노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시련과 질병 고통에 있으면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그 뜻에 겸손하게 복종하게 된다. 어려움에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며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노인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짐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과 인간의 신비를 깨닫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도록 지속적인 봉사와 사목 활동을 펼쳐야 한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73). 즉 교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노인을 돌보도록 지속적인 봉사와 사목활동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생산적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의 생명의 문화를 위한 노력의 관점에서 질병과 고통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스러움과 불가침성에 대한 절대적 원리를 일깨워 주는 특별한 수단이 된다. 인간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죽거나 사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을뿐더러 다른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73). 종교에 배타적이고 무관심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이다. 가시적인 기쁨이나 행복을 느낄 때는 삶에 감사함을 여기고, 고통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벗어 버려야 하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죽음에 대해, 희망과 가능성 넘치는 생명을 잃었을 때는 부조리한 것으로 여기고, 고통에 짓눌린 생명은 의미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생명이 끊어졌을 때 해방으로 여기고,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권리로서 요구하는 시기이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74). 이런 시기에 시련과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노인들을 돌봄으로써 생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 또한 생산성으로 볼 수 있겠다.

6) 성경에 담긴 노인들과 노년기

성경에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과 지혜로 가득한 인간의 상징으로서 인생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가진 노인(CBCK, n. 188)과 인간이 겪는 노년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성경에서 노인의 모습은 노년에 대한 영성적, 도덕적, 신학적 이해의 출발이 된다. 「존엄과 사명」에서는 성경에 담긴 노인의 모습은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노년이 주는 신체적 쇠약함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모두 담고 있음에 주목하게 한다.

첫째, 성경에는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노인들이 있다. 육체적 장애와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서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다. 이사악은 아이를 못 낳던 늙은 사라와 백세가 다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다. 세레자 요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과 늙은 즈가리아에게서 태어났다. 나약한 노인이지만 그들 또한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58-59).

둘째, 성경에는 노년기에 마주할 육체적 쇠약함과 덧없음을 바라보라 한다. 삶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 않은 한순간의 삶이고 육체적 쇠약함과 죽음이 도래하게 될 현실이 있음을 일깨워 준다. “저희의 햇수는 칠십 년 근력이 좋으면 팔십 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 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Ps 90:10).”

셋째, 노년과 죽음의 실재를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한다. 교회는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린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Ge 25:8).” 교회는 죽음이 지닌 신성함과 완성의 의미를 담은 이 구절을 통해 인간 생명의 의미와 가치, 노년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진리를 일깨우려 하고 있다. 죽음을 회피하고 감추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현실을 보면서 죽음의 의미와 실재를 인정하라고 한다.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벌이나 허무한 삶의 무의미한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이며,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참되고 확실한 희망의 시간으로 인식할 것을 가르친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59).

넷째,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60-61). 성경의 시편에는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이다(Ps

90:12).” 성경에 의하면 슬기로움은 장수가 갖는 은혜로움이다. 그렇다고 슬기로움이 노년과 함께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Ps 71:1).”

기도는 노인의 삶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기도는 봉사이다. 기도는 노인들이 교회와 전 세계의 선익을 위하여 행하는 봉사 직무이다. 기도는 노인들이 깊은 영적 묵상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기력이 다하여 침대에 누워 있을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은 기도함으로써 수도사나 은거자처럼 될 수 있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61). 또 기도를 통하여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다. 어떠한 쇠신, 어떠한 사회적 쇠신도 묵상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이 없다. 기도를 통한 하느님과의 만남을 역사의 과정에 힘을 불어 넣는다. 그 힘을 마음을 감동시켜 회개와 쇠신으로 이끌고, 그리하여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역사적 힘이 된다.

7) 모든 이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

노인 문제는 곧 모든 인간의 문제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당면 문제로 첫째는 소외의 문제가 있다. 소외는 인간 존엄성에 상처를 준다. 소외의 가장 고통스러운 차원은 인간 관계의 결여인데 버려지거나 외롭거나 격리될 때 만이 아니라 인간적 접촉이 없을 때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대인관계나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고 필요한 지적, 문화적 자극과 풍요도 없기 때문에 생활도 따분해진다. 또한 노인은 개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그들과 관계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어 자신들의 상황을 바꿀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끼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잃게 된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62).

둘째, 지원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 노인을 돌보는 여러 사회 제도들이 있다. 돌보아 줄 가족도 없고 자신을 돌볼 만큼 충분한 재정도 없어서 자급자족이 어려운 무력한 노인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려고 제도적인 관리 체제가 있고, 이에 의존하는 현상은 심화되고있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63). 제도적 지원 체제가 발달하고 있지만 지원의 형식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요양 시설과 같이 제도적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회적 격리로 해석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식의 지원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 거주지역에 머물면서 지원을 받거나, 돌봄 시설이라 해도 가정과 비슷한 분위기를 주는 공간 구조와 가구를 갖추도록 제안하고 있다.

셋째, 교육과 고용의 문제이다. 「존엄과 사명」은 1998년 발표되었다. 그 이후로 교육환경은 크게 변화하였고, 고용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25년 전, 노인의 교육과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아래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노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하고, 고용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영성적 차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우리 시대는 교육과 직업 활동의 긴밀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노인을 위한 교육 정책이 부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 발전의 빠른 진행과 보조를 맞추고 거기에서 물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려면 노년의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연마가 꼭 필요한데도, 노동 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교육 수준을 가진 노인들은 지속 교육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 노인들에게 무슨 일든 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삶의 영성적 차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65).

넷째, 참여의 문제이다. 노인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한 정책과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참여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특수한 단체나 대표성을 가진 적절한 정치 기구와 노동 조합을 통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노인단체 설립을 장려하고 기존 단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관심과 만연된 개인주의, 경쟁주의, 실용주의의 문화를 저지하고 세대 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벽을 허물려면, 새로운 사고, 새로운 태도,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인간 중심 사상과 인간 존엄을 수호할 변명과 사회 정치를 추구하여야 한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65).

Ⅲ. 가톨릭 노인 종교교육과정 설계

교육 목표가 있는 계획적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교육과정 설계란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틀로써 설계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계획하게 된다.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교육과정 요소를 배열할 때, 교육의 철학적 문제와 학습 이론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근거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교육목표, 교육 내용이 선정되고 수업 전략과 자료 그리고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또한 교육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계획한다.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의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견해가 반영된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노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에서도 노인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노인 종교교육의 대상

전 세대가 노년기에 대해 이해할 때 노인을 위한 종교교육도 의미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노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년에 대해 광범위한 부정적 관념을 바로 잡는

것은 문화와 교육이 할 일이며, 이는 모든 세대의 과제이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54). 노인에 관한 교육은 아직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은 이들에게도 행해져야 한다. 노인 스스로 노년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의 편견은 왜곡된 생각을 고착화 시키므로 모든 연령대에서 노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날의 노인들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그들이 노년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노년을 거부하려는 유혹이나 자기 소외 또는 체념, 자신은 아무 쪽에도 쓸모 없다는 잘못된 생각이나 절망감에 빠지려는 유혹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곧 모든 인간이 삶의 이 시기를 품위있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 사회적 정신적 환경을 마련해 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54).

노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 대상이 모든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의 근거는 교리교육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교리교육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권리와 의무(Committee for Catechesis in CBCK, n. 62)이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리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진리를 알고 행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교리교육의 과정에서 교육 대상자들은 단지 침묵하고 수동적인 수용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어 있으며 공동 책임자들인 주체이다(Committee for Catechesis in CBCK, n. 62).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의 노인교육은 가톨릭 교리교육의 한 영역이자 그것은 가톨릭의 인간론에 대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의 인간론에 기초할 때,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은 노인 자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2. 노인을 위한 교육

1) 교육의 목표: 지혜를 찾는 교육

교육과정 설계에서 교육의 목표는 가치, 문화, 학습자와 사회적 특성 그리고 교육의 배경 등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선정된다. 그러므로 가톨릭 인간론은 교육목표 설정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그에 기초하여 노년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목표 설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노년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 노인의 요구에 대한 인식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성장을 위한 교육을 노인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다. 노인들이 후퇴하려는 자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들이 그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를 방해하는 무관심과 불신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혜를 찾는 교육이라 부른다. 가톨릭 노인 종교교육의 목표는 구체적인 교육 상황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지혜를 찾는 교육은 모든 노인 종교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는 인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Lee & Cho, 2007), 평생교육에서 지혜는 노년기 삶의 질을 예측하는 핵심 요소이다. 지혜는 나이가 들어도 쇠퇴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 가능한 영역이고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Choi, 2014). 성경과 노인에 관한 교회 문헌에서 노인의 지혜가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는 나이와 함께 저절로 함께 자라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 종교교육의 목적으로서 지혜는 적합할 것이다. 지혜는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조건이 된다. 통합은 노년기에 도달해야 중요한 특성(Alberich, Choi et al., trans., 2018)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지혜는 적절한 교육목표라 하겠다.

슬기는 노인이 받아들이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하느님의 은혜이다. 그러한 목표를 추구할 때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날들이 얼마나 짧은지를 셀 수 있게 해 줄, 다시 말해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준 시간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줄 마음의 지혜에 이를 수 있다. 이 지혜의 본질은 하느님 안에서 인간 생명과 인간의 초월적 운명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일이 젊은이들에게 중요하다면 하물며 노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60).

고대 수도승들은 삶의 목적을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표현했다. 그런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신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뿐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 가르치는 지혜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대 수도승의 삶의 지향으로부터 노년기 삶의 지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Ruppert, 2016: 23). 수도승들은 삶의 지향을 내적 평화를 찾는 마음, 공포와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마음,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태도에서 자유로워진 마음 그럼으로써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관상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에 두었다. 삶의 목표를 고대 수도승이 묘사하는 대로 받아들여 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신앙 공동체 맥락에서는 삶의 목적을 자신의 경험과 개인의 언어를 바탕으로 정신적 영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내용 선정의 준거로서 희망과 새로움

노인은 생활 중에 겪는 고통, 무기력, 질병, 상실 같은 것 때문에 부정적 운명론이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을 자비롭지 않은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의 지평을 다시 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67). 가톨릭의 노년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성장과 새로움 그리고 희망을 교육 내용 선정의 준거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교리교육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Lee, 2008). 신앙의 성장을 돕는 교리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지만 입문성사를 준비하

는 예비자 교리교육 기간, 신앙인으로서 성숙함을 다져가는 견진교리 교육 기간이 지나면 교리를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다. 또한 노인을 위한 교육 내용 선정에서는 희망을 주제로 하는 내용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때 희망은 신앙에서의 희망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하느님과 궁극적으로 만나리라는 희망의 교리교육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주님과 만날 위대한 순간에 다가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는 신앙을 증언할 때, 개인과 사회에는 유익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부요를 가져다 준다. 교회는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시메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알아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받은 세례의 의미, 곧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으며 죽음을 통하여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재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세례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식할 때, 노인들은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 앞에서 마음 속에 천진한 경외심을 품게 된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67).

요한 복음서에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Jn 3:7)는 구절이 있다. 위로부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의미에는 처음부터, 다시라는 의미가 있다.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에게 그들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역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의 신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 줄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하느님을 증언하는 책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공동체의 나이 든 사람을 복음화하거나 재복음화하는 사목은 이 단계 삶의 고유한 영성 즉 끊임없이 거듭남에 바탕을 둔 영성을 길러 주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에게 꾸준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과 권태가 자신의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1998: 68).

노인을 위한 교육에서 희망과 새로움에 초점을 둔다고 해서 노인의 현실을 외면한 순진한 낙관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노인의 쇠약함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대해 “약함의 교사”를 숨기지 말라고 권고한다.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약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의 현실입니다. 거기엔 노년이 일생 동안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상기시킬 수 있는 약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늙음을 숨기지 말고, 늙음의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Pope Francis, 2022).

희망과 새로움의 교육에서는 노인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돌보는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돌봄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세대와 분리되는 세대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는 편견과 차별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에 관한 교육에서도 다루어져야 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교육내용 선정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의 취미나 여가 활용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역할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교육 활동 선정

교육 활동 선정과 관련하여 첫째, 공동체와 함께 하는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겠다. 노인들이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받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섞이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는 봉사과 돌봄 제공에 참여하는 활동과 연결할 수 있다. 공동체 안에 노인들에 대한 봉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노인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들 각자의 능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본당에서는 노인을 위한 영성 활동과 공동체 활동, 오락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노인에 의한 교육 활동의 맥락에서 실천할 수 있겠다. 둘째, 신앙의 성장과 관련하여 교회의 성사 생활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성찬례 거행, 고해성사, 순례, 피정, 영성 훈련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이 노인 친화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활동에서 영적 돌봄에 유의할 것이다. 기력이 없거나 신체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이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돌보고 도와 주는 일에는 영적인 보살핌도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병자와 임종을 맞는 이들에 대한 성사, 적절한 교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말기 병자를 위로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섯째, 이웃을 돌보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노인을 돌보기, 공공 또는 사립 주거 시설에 사는 노인들을 돌보기, 교회의 교역자이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목자인 노인 사제도 노인에 포함된다는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곱째, 기도와 죽음에 대한 교육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교육 활동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이자 주제가 된다. 기도는 노인이 갖는 생산성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며, 죽음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희망의 교육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죽음이 완전한 소멸이고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죽음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황혼기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나 친구 친지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황혼기를 생각하게 만든다. 죽음이 다가온다. 그러나 노인조차 이 문턱을 통과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죄와 맞닿아 있는 인간 조건에서 죽음은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어두운 측면을 드러낸다. 인간은 삶을 위해 창조되었다. 성서의 앞 부분에 밝히고 있듯이 죽음은 하느님의 원래 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다. 죽음은 악마의 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었다. 따라서 죽음이

라는 어두운 현실에 직면할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Pope John Paul II, 2000. n. 14).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턱을 넘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여 영원이라는 미지의 ‘영토’에 속한 생명을 계시해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첫 증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불멸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합니다(Pope John Paul II, 2000. n. 15).

3. 노인에 의한 교육: “노인들과 지혜의 은총”

교회는 노인의 존엄과 가족 공동체에서 노인의 중요한 역할을 재발견하기 위해 노인이 기억과 지혜의 전달자임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데 있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여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풍부한 경험은 노인들의 화관이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다”(Sir 25:6). 교회는 연륜 있는 노인들에게 선교 생활이 그들의 의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사도적 선교 생활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 연륜 그 자체가 어떤 구체적이고도 기본적인 형태로 사명 실천의 훌륭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것은 노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로운 사도적 과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은 과거의 향수에만 안주하려 하거나 날로 새로워지는 세계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때문에 현재의 책임에서 도피해 버리려는 유혹을 극복하는 결단을 말한다. 그렇게 될 때, 노령에 이르는 것은 하나의 특권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Pope John Paul II, 2006, n. 48).

이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과 지혜가 있는 노인의 모습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가진 노인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지혜의 은총으로 인해 노인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은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노인에 관한 교육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대 간 갈등에서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고정관념, 태도, 노화에 대한 오해, 무지, 젊음에 대한 우상화 등으로 고령자에게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는 관점을 연령주의(ageism)라 한다(Kim et al., 2016). 퇴직한 50대 중년 남성에서부터 연령주의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으며, 전문가집단도 고령자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연령주의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Lee et al., 2022; Kim et al., 2016). 연령주의는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오늘날 가족의 거주 형태는 과거와 많이 달라 젊은 세대들이 주거 공간과 생활 가운데 조부모와 노인을 대할 기회를 갖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지식 수준과 노인과 관계의 질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Jang & Kang, 2023; Kim & Min, 2020). 그러므로 노인에 관한 교육에서는 연령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톨릭 교황은 ‘수요 일반알현’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을 만나고 그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가르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년 2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수요 일반알현을 통해 노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황은 노인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쳤다. 이 기간에 다루어진 내용은 앞서 살펴본 노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관점이며, 노인에 관한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교황은 노인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교리교육을 시작했다. 그리고 노년은 세월의 축복이며 세대 간 통합의 중요성을 밝혔다. 노년은 모든 세대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며 아르헨티나의 시인 프란치스코 루이스 베르나르데스를 인용하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나무에 피어난 것은 나무 아래 묻힌 것에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노인은 다른 이들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Pope Francis, 2022).

노인 종교교육은 대상과 교육 상황에 따라 이상과 같이 구분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을 실행할 때는 교육 상황에 따라 통합할 수 있겠다.

IV. 결론

가톨릭 교회는 시대의 표징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고 있다. 교회가 특정한 시대와 대상에 초점을 두고 담화문을 발표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에 신자들이 보아야 할 곳을 가리키고 공동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난민의 날, 기후위기의 날, 청소

4) 가톨릭 교회 교황이 행하는 수요 일반알현은 1939년 4월 교황 비오 12세가 수요일마다 교리교육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교황의 일반알현은 이탈리아어로 진행되며 영어, 프랑스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교리교육 내용이 요약되어 발표된다. 이때 교황은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객과 인사를 나누며 가톨릭 신앙을 가르친다. 즉 교리교육을 한다. 교리교육은 주제에 따라 지속기간이 다르다. 수요 일반알현의 교리교육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지는데 성 요한 바오로2세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몸의 신학을 가르쳤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교리교육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노인에 대한 교리교육’은 18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구원의 계시 진리를 가르치는 책임을 갖는다. 즉 그가 가르치는 교리교육은 가톨릭 신앙인의 신앙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년의 주간, 노인의 날 등을 제정하여 평소 지나쳤던 사안에 대해 주목하고 가톨릭 신앙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령, 초고령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대의 상황에 주목하여 각 분야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령 사회에서 가톨릭 노인 종교교육을 설계할 때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출발하였다. 초고령 사회라는 맥락에서의 노인과 노인교육에 대한 가톨릭의 관점을 탐색하였다. 무엇보다도 노년에 대한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할 것이 요청되었다.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자는 것은 노년기 삶에 대해 교회가 갖는 관점이다. 따라서 희망, 성장, 발전을 노인교육의 비전임을 확인하였다. 초고령 사회에서 나이 듦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노인 또한 지혜를 찾는 여정에 참여하여 노인에 의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웃 종교의 의례와 예식도 그러하겠지만 가톨릭 전례에는 모든 연령대가 함께 한다. 부모와 함께 온 영·유아에서부터 오랜 세월 성당에 머무르던 고령의 노인까지 같은 공간에 있다. 오늘날 모든 연령대를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종교 기관 그리고 종교 전례에는 다양한 세대가 참석한다. 이는 세대 간 이해를 도모하고, 인간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공간에서 노년기 삶에 대한 가르침 즉, 모든 연령대의 삶은 각자 고유한 의미가 있으므로 노인에게 품위있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 사회적, 정신적 환경을 마련해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접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즉 가톨릭 신앙공동체는 노인교육을 위한 가장 적절한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다.

References

[Abbreviations]

Jn : John

Lv : Leviticus

Gn : Genesis

Ps : Psalm

Sir : Sirach

[Primary Sources]

- Congregation for the Clergy. *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옮김 (2009). 교리교육총지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The Dignity of Older People and Their Mission in the Church and in the World*.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옮김 (1999). 교회와 세상 안에서 노인의 존엄과 사명(1998. 10. 1.).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11권. Retrieved 2024. 10. 9. from <https://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56848#p=47>.
- Pope Francis. *Evangelii Gaudium* (2013. 11. 14.).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옮김 (2017).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Pope Francis. *First World Day for Grandparents and the Elderly, "I Am With You Always"*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옮김 (2021).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달 담화 (2021. 7. 25.),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64호. Retrieved 2024. 10. 9. from <https://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4889>
- Pope John Paul II. *Letter to the Elderly*.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옮김 (2000). 노인들에게 보내는 서한(1999. 10. 1),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14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Retrieved 2024. 10. 9. from <https://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56864#p=177>
- Pope John Paul II. *Christifideles Laici*.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옮김 (2006). 평신도 그리스도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Retrieved 2024. 10. 9. from <https://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74166>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9). 성경 (제2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09). *The Holy Bible* (Second ed.).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2014). 한국 천주교회 교리교육지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ommittee for Catechesis i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14). *Korean Catholic Church Catechism Guidelines*.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Retrieved 2024. 10. 9. from <https://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4722>

[Secondary Sources]

- An, J. S., Chong, Y. S., Jeong, Y. J., Seo, S. G., & Cooney, T. M. (2011). Critical Aspirations from Studies of Successful Aging.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 Psychology*, 24(3), 35-54.
- Alberich, E. S. La catechesi oggi: manuale di catechetica fondamentale. 최주영, 백광현, 신현문 옮김 (2018). *오늘의 교리교육*.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 Choi, E. Y., & Kim C. S. (2012). Review on the Recent Research in Social Gerontology - the Concept of “Elderly” and Topics in the Articles from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19(1), 165-185.
- Choi, R. Y. (2014). Wise-Aging for Some Scholars in Their Life Histor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0(4), 29-60.
- Dicastery for Laity Family and Life (2024. 10. 5.). 4th World Day for Grandparents and the Elderly: how it was celebrated worldwide. Retrieved 2024. 10. 15. from <https://www.laityfamilylife.va/content/laityfamilylife/en/news/2024/iv-giornata-mondiale-dei-nonni-e-degli-anziani-il-racconto-dell.html>
- Groome, T. H. Educating for Life. 조영관, 김경이, 우정원 옮김 (2021). *생명을 위한 교육*.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Jang, O. H., & Kang, E. M. (2023).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Intergenerational Elderly Life Experience Program on Attitudes and Knowledge of the Elderly - Focusing on Youth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30(10), 385-414.
- Kim, C. S., & Cho, H. Y. (2017). Another View on the Social Discourse of Productive Aging in Korea.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4(2), 7-28.
- Kim, H. J., & Min, J. H. (2020). Effects of Grandparents Caregiving on Their Young Adult Grandchildren's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Focus on the qualit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40(5), 935-951.
- Kim, J. H., Ju, K. H., Oh, H. I., & Jung, S. D. (2016). A Study on Ageism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professional groups: Focusing on Interaction between Elderly People and professionals in area of medical, social service, law and financ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2), 9-47.
- Kim, S. Y., Seo, J. H., Hwang, M. S., & Hyun D. H. (2023). *A Study on the Decomposition of Contributions by Age-Causes to Change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in Korea*. Daejeon: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Retrieved. November 10, 2024, from https://kostat.go.kr/board.es?mid=a90101010100&bid=11887&act=view&list_no=424827&tag=&nPage=1&ref_bid=12054,12059,12056,12058,12060,12062,11887,12053,12055,12057
- Kim, Y. S., Han, K. O., & Kim, J. E. (2018). Development of a Learning Motivation Scale for Older Adult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4(1), 85-116.

- Lee, K. J., Song, H. J., & Choi, H. J. (2022).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Ageism Experience of White-collar Male Retirees.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13(1), 103-132.
- Lee, S. L., & Cho, S. H. (2007). Aging and Wisdom: An Integrated Conceptualization of Successful Aging.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3(3), 65-87.
- Nam, S. H. (2016).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Approach on the Meaning of Elderly Work and Leis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J. Y. (2009). Spiritual Care: Humane and Theological Meaning. *Health & Mission*, 17, 4-14.
- Ruppert, F. *Alter werden - weiterwachsen*. 정하돈 옮김 (2016). 노년을 위한 마음 공부. 칠곡: 분도출판사.
- Vatican News (2022. 1. 1.) General Audience Pope Francis. Retrieved 2024. 11. 10. from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2-06/papa-francesco-udienza-generale-catechesi-vecchiaia-fragilita.html>
- Yoo, B. S. & Lee, H. S. (2021). A Critical Study on the Discourse of Elderly. *Studies on Life and Culture*, 61, 27-53.
- 박경숙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출판. (Translated in English) Park, K. S. (2003). *Aging Society The Future Has Already Progressed*. Seoul: Uiam Press.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2024). 노령화지수와 부양비. (Translated in English) The Seoul Research Data Service. Aging Index and Dependency Ratio. Retrieved 2024. 10. 10. from <https://data.si.re.kr/data/%EC%84%9C%EC%9A%B8%EA%B3%BC-%EC%84%B8%EA%B3%84%EB%8C%80%EB%8F%84%EC%8B%9C/23>.
- 이재영 (2008). 고령화 시대에 따른 한국천주교회 노인 신앙교육에 대한 연구. 가톨릭사상. (37), 1-37.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Lee, J. Y. (2008). A Study on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 Elderly in the Catholic Church of Korea in the Aging Era. *The Catholic Thought*, 37, 1-37. Daegu: Daegu Catholic University, Institute of the Catholic Thought.